

## 행복한 금요 편지

# 주역으로 본 탄핵정국과 그 이후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sup>1)</sup>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헌정사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탄핵의 공은 이제 광장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는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탄핵 판결을 내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은 현재의 최종 판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수용하고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광장의 촛불은 위대했다.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준엄한 현재의 결정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의 하야를 요구하는 광장의 촛불과 또한 하야를 반대하는 태극기의 휘날림은 헌법 제1조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고전이면서 천지만물의 변화 원리를 밝히는 주역은 현재의 탄핵정국과 그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볼까? 태화혁(澤火革) → 지뢰복(地雷復) → 천화동인(天火同人) → 화지진(火地晉)이라는 괘상의 흐름으로 그 의미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첫째, 탄핵정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악(舊惡)과 적폐(積弊)를 일소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펼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역 제49괘인 태화혁(澤火革)은 연못아래 불이 있는 괘상으로 올바른 개혁은 순수한 동기와 바른 절차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성급하거나 극단적인 진행이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중용(中庸)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둘째, 탄핵정국은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의 핵심이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돌아오는 시대, 즉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둥이 땅속에서 움직이는 과상을 지닌 주역 제24괘인 지뢰복(地雷復)이 말하듯이 바르고 힘찬 기운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민본(民本)으로 돌아가지만 그 길 또한 중용(中庸)의 도를 지키며 후덕하고 정직한 정치로 나아가야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탄핵정국으로 대선이 내년 6월을 전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정부는 민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비전과 통치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불꽃이 위로 올라 하늘과 연결되는 과상을 가진 주역 제13괘인 천화동인(天火同人)은 공평무사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도록 끌어 모으고 대동단결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박세일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가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국민통합)가 존중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 국가발전의 원리인 자유주의 철학이 중시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국정 통치 철학의 중심이 되어 만백성을 하나로 대동단결시켜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넷째, 결국 대한민국은 주역 제35괘인 화지진(火地晉)이 의미하는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올라 나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은 있어도 이를 극복해나가면서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6년 병신(丙申)년은 천지극(天地剋)으로 큰 불이 강철을 녹이는 형상이다. 강철이 녹슬고 무디고 부패했다면 녹여서 국운(國運)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보검(寶劍)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정유(丁酉)년은 어두웠던 세상을 바르게 밝히는 환한 빛(丁)의 한해가 되어서 국운이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어서 한선재단과 선진통일건국연합의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선진과 통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초석(礎石)을 만들기를 소망한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